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기수로 나선 김연아를 비롯한 선수단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U대회 세계지원법 국회 통과

### 여성 의무 공천 조항 신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

2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의무 공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지원법안을 처리했다.

개정 선거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공천한 지역에서 1명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되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지방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지방의원 진출 폭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의 지방의원 공천 지형에 지역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법안은 시도의회 의원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인구·생활권·교통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지원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에 접수하는 기부금에 대해 당해 기업이 소득금액의 50%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회 조직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경감하고, 조직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영웅들의 귀환

### 공항 가득 메운 인파 대대적 환영 김연아 "전국민 응원 큰 힘 됐다"

'밴쿠버 영웅들이 돌아왔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일 귀국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동메달 6개·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5위에 올라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금의환향'이었다. <관련기사 19면>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최고점을 경신하며 금빛연기를 펼쳤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는 물론 최장거리(1만 m)까지 석권하는 등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활약을 펼친 한국 선수단 본진 58명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대형 태극기를 든 '피겨여신' 김연아를 앞세운 한국 선수단은 가족과 친지·경기단체 관계자·스포츠 팬들에 둘러싸여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과 박성인 선수단장을 비롯해 메달리스트 11명과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관규 감독·소프트랙 대표팀 김기훈 감독·브라이언 오서 코치 등 지도자 6명은 인천공항 2층 CIP 비즈니스센

터에서 대회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은 "선수단의 성과는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국격을 높여 평창의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성인 선수단장도 "올림픽 기간 한결같은 성원을 보낸 국민 덕분에 종합 5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연아는 "환영과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스피드스케이팅과 소프트랙, 봅슬레이 선수단은 곧장 태릉선수촌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3일 오전 태릉선수촌에 다시 모여 해단식을 연다.

해단식 뒤에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전남지사 3월28일 국민참여경선

## 광주시장 4월10일...배심원제 난항

### 민주 경선 방법 이견 여전...기초단체장은 내달 6일부터 시작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국민 참여경선으로 오는 28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다음달 10일 실시된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에 이어 2일 밤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이날 밤 10시 현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오는 28일 국민 참여경선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은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50%

로 구성하고 당원 전수조사나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50% 반영하기로 했다.

당원 선거인단은 추천당원 20%+당비우대당원 50%이하+일반 당원 30% 이상의 비율로 구성된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다음달 10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선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은 1안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 50%+당원전수조사 50%'의 조합 방식이 제시됐다. 2안으로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한 1차 경선(첫-오프)에 이어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당원·당규에 광역단체장 경선은 완전국민경선과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적시돼 있으며 광주를 전라공천 지역으로 선정할 명분이 없다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한,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검토 지역으로 광주 남구, 여수시, 전북 정읍시와 임실군, 서울 은평구와 중랑구, 경기 오산시와 안성시 등 9개 선거구를 선정했다.

한편,민주당 전남도당은 2일 공식 위 1차 회의를 열고 전남 기초자치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당원 50%·국민 50%), 광역·기초의원은 '당원경선'으로 확정된 뒤 세부적인 방법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은 다음달 6일 강진·해남·고흥군을 시작으로 ▲7일 곡성·장흥·진도·신안 ▲8일 화순·무안·영암·구례 ▲9일 완도·담양·함평·보성 ▲10일 목포·담양·당규에 광역단체장 경선은 완전국민경선과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임동욱·최권원 기자 tuim@

**변호사 재개업인사**

대한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변호사로서 재개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개업 인사는 변호사로서 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개업 인사를 신청할 때는 변호사로서 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 문형섭** 취임

입학계시: 2010. 3. 31 (목) 17:00 (예입소엔)  
입부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문로 106-3  
문의전화: 062-222-4700

## 2010학년도 광주 바이블칼리지 신입생 모집

한국 신학교 최초 정규 커리큘럼에 영성자유롭게 익힐 수 있는 기회!  
**마지막시대의 마지막 부르심!**

1. 모집대상: 2010년 9월 1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취득자  
2. 모집학과: 신학부(신학사), 상담복지학과(상담사), 기독교상담학과(상담사), 기독교상담학과(상담사), 기독교상담학과(상담사)

학과	신입생	학비	입학	졸업
신학부(신학사)	10명	1,500만원	2010. 9. 1	2013. 2. 28
상담복지학과(상담사)	10명	1,500만원	2010. 9. 1	2013. 2. 28
기독교상담학과(상담사)	10명	1,500만원	2010. 9. 1	2013. 2. 28
기독교상담학과(상담사)	10명	1,500만원	2010. 9. 1	2013. 2. 28

문의전화: 062-222-4700

**광주바이블칼리지**  
Bible College of Gwangju